

24년 12월 목회일정

1일(주일)	정기제직회(입교자 당회면담)
8일(주일)	입교 및 성찬입회식(김성재 이은수)
15일(주일)	결산 및 예산 공동의회
22일(주일)	성탄주일
29일(주일)	2024년 임시직분자 임명(4/4분기특별헌금)
10일(화)	결산 및 예산위원회(재정심방보고)
19일(목)	3교회(로템장로 샘터)목회자 모임(본교회당)
25일(수)	성탄절 모임

주간소식

-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헌금 / 장학목적(고려신학대학원)
 3. 성찬입회교육 / 김성재 이은수학생(오늘 오후예배 후에 성찬
입회를 위한 당회면담이 있습니다)
 4. 입교 및 성찬입회식 / 다음 주일 오전예배 시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간단한 축하식과 단체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입교자 : 이은수 김성재학생
 5. 정기제직회 / 오늘 오후8시 영상으로 모이겠습니다.
 6.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저녁	20: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금요독서회	20:00
교회 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12월	25.01월
교회소식	고충석	고충석
봉 헌	강정희	김낙형
안 내	노주혜	조안나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혁정론(고신 개혁 언론)
	파서교회(고신, 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구제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곡성연합교회(최지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김신혜

주후 2024.12.01.(제28-48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교회소식

개회

* 예배에로의부름 ↑ 사 11:10(교송)
인도자 :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회 중 :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 축복의인사 ↓ 고전1:3(다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배찬송 ↑ 찬송11장(2)

죄의고백

* 십계명봉독 ↓ 신 5장(전계명/봉독)
* 죄의공적고백 ↑ 다같이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감사찬송 ↑ 시편24편(1-2)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행20:7-12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67편
설교 ↓ 설교자

잠을 자다 떨어진 유두고

아멘 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세례식 ↓ 필요시 시행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44장(1a-b) 구제헌금 분봉 분잔
목회기도 ↑ 설교자

봉사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가228장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가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div> <div>주일오후예배</div> <div>교회소식</div> <div>개회</div> <div>* 예배예로의부름 ↑</div> <div>인도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div> <div>회 중: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div> <div>* 축복의인사 ↓</div> <div>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div> <div>* 경배찬송 ↑</div> <div>신앙고백</div> <div>* 신앙고백 ↓</div> <div>* 감사찬송 ↑</div> <div>말씀봉사</div> <div>설교를위한기도 ↑</div> <div>성경봉독 ↓</div> <div>교리문답교독 ↓</div> <div>선포를위한찬송 ↑</div> <div>설교 ↓</div> <div>하나님의 진노와 구속의 은덕</div> <div>아멘송 ↑</div> <div>자비사역</div> <div>봉헌및봉헌찬송 ↑</div> <div>폐회</div> <div>* 강복선언 ↓</div> </div>	오후 3시	인도 설교	최성림 목사 최성림 목사	주간기도회
				<div>아침기도회</div> <div>월~금 6시(교회밴드)</div> <div>요한복음 묵상</div> <div>인도 : 최성림 목사</div>
				<div>수요기도회</div> <div>수요일 20시(예배당)</div> <div>[말씀·고백·삶]</div> <div>인도 : 최성림 목사</div>
				<div>지역기도회</div> <div>인도 : 최성림 목사</div> <div>* 동부(수, 10:30)</div> <div>인도 : 양주동 목사</div> <div>* 김해(수, 19시)</div>
				<div>이야기성경</div> <div>84. 하만장관의 무서운 계획</div>
				<div>신</div> <div>53.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div>
				주간성경읽기
				<div>주일</div> <div>대하30-31</div> <div>요일 4</div>
				<div>월</div> <div>대하32-33</div> <div>요일 5</div>
				<div>화</div> <div>습 1-3</div> <div>요일</div>
				<div>수</div> <div>대하34-36</div> <div>요일</div>
				<div>목</div> <div>렘 1-2</div> <div>계 1</div>
				<div>금</div> <div>렘 3-5</div> <div>계 2</div>
				<div>토</div> <div>렘 6-8</div> <div>계3:1-13</div>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잠을 자다 떨어진 유두고)

- 1. 복음의 강설과 성례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 2.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연합을 예배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 3. 마침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날을 소망하며 살기를

파서교회(강인중 목사)

- 1. 예배와 주중 말씀사역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 2. 안정적인 예배를 위해 교회가 함께 회집할 수 있는 처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 3. 필요한 재정이 이웃교회를 통해서 적절히 채워져서 공교회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개혁정론(고신개혁언론)

- 1. 개혁정론이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교회를 바르게 잘 섬기도록
- 2.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위해서라면 어떤 권위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언론이 되도록
- 3. 고신교회가 역사적 개혁주의전통을 회복하도록 개혁신학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잘 제공하도록

고신교회와 부산중부노회를 위하여

- 1. 우리교회가 속한 고신교회와 부산중부노회의 정치에 허탄한 세상의 원리가 자리잡지 않도록
- 2. 부산중부노회와 동래시찰에 속한 교회들이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바르게 세워져가게
- 3. 교회의 지도자들(목사 장로)이 참된 말씀과 바른 신앙고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왕처럼 살고 있습니까? 왕처럼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클라리온(Clarion) vol 71. No 11 / 개혁정론에서)

릭 밴더호스트 목사(Grace Canadian Reformed Church)

왕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왕처럼 살아보고 싶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처럼 사는 삶”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날마다 자신이 원하는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왕처럼 살기”를 검색해보면, 아마도 휴가기간이라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행상품들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돈을 쓸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왕”

왜 “왕처럼 사는 삶”은 사치스러운 삶으로 묘사되는 것일까요? 만약 당신이 왕이라면 모든 사람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돈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돈이 당신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가진 권력과 부를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움직여 당신을 섬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러한 삶을 즐겼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완벽한 사례는 프랑스의 루이 14세일 것입니다. 그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엄청난 부와 사치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베르사유를 방문하여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화려함에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수조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도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왕처럼 사는 삶이 화려하고 사치한 삶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은 자비로운 베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모두 가지신 분입니다(시 24:1-2).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하이델베르크 10주차). 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런 말씀들을 읽으며 진리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 왕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세계에 끊임없이 좋은 것을 주고 계심을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그분은 태양을 주시고, 비와 음식과 물과 옷과 음악과 생명과 호흡,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의 영광과 안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결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이생에서도, 내생에서도 헛될 뿐입니다.

2. 죄에 대한 보응에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소망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회개와 은덕의 방편들입니다.(소교리85문답)

1)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소교리86문답)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요 1:12).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일으키십니다(소교리30문답, 고전12:3). 곧,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효력있는 부르심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믿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됩니다.

2)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도록 이끄십니다.(소교리87문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없이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②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인정하여 죄에서 떠나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를 애통할 뿐 아니라 죄를 떠나 그분의 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은덕의 외적 방편들**을 통해서 당신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덕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소교리88문답) ① **교회는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며, 죄로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② 또한 **매주 예배 가운데 베풀어지는 성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약속에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며, 자녀 삼으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당신의 상에서 당신의 생명을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로 당신의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③ **하나님께서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구원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을 떠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주신 유일한 피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12월 1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228장
성경봉독	행 20:7-12
설 교	잠을 자다 떨어진 유두고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 중에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배 중에 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배시간에 자다가 죽게 된 유두고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두고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두고를 통해서 당신의 큰일을 나타내십니다.

1. 떨어진 유두고

주일 밤에 드로아의 성도들이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내일이면 떠날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과 작별하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별만을 위한 모임은 아닙니다. 함께 떡을 떼며, 강론을 듣는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이 예배는 밤이 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본문은 밤 늦게까지 설교가 이어졌다고 강조합니다(7, 9절).

윗 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8절). 그만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심지어 유두고는 창가에 걸터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등불의 열기를 피하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열정이 아주 대단했다는 겁니다. 유두고 역시 졸음이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복음의 강설을 듣고 자 하는 열의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강설이 길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유두고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유두고는 잠들었습니다. 잠만 자면 괜찮았겠지만, 그는 높은 창문에 걸터앉아있었습니다. 그는 떨어졌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일으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유두고의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유두고가 실제로는 죽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흥미로운 연출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초점이 “위”를 향합니다. 윗 다락에 등불이 켜져 있고, 유두고는 다락방의 창문에 앉아있습니다. 그곳은 3층 높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초점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유두고가 잠에 빠지는 순간 성경의 시선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와 함께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위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다”라는 이 단어는 유두고가 “떨어졌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를 재 활용 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 사도도 유두고 위

에 떨어졌습니다.

2. 살아난 유두고

바울 사도는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유두고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유두고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4번 등장합니다. 두 번은 예수님께서, 나머지 두 번은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행한 일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사도들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에게도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계승이 있다는 점을 그의 행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떨어진 유두고 위에 자신의 몸을 얹드립니다. 이 행동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보여주었던 행동이기도 합니다(왕상 17:21, 왕하 4:34).

오늘 본문은 “떡을 떼다”는 말이 처음과 마지막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떡을 떼기 위한 모임입니다.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일입니다.

유두고가 떨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도가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살아났습니다. 사도가 대신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신비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유두고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 다. 단지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기적을 목격해서가 아닙니다. 유두 고라는 청년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두 눈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성경의 시선은 “위”로 올라갑니다. 바울 사도는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습니다. 유두고의 죽음까지 카메라의 앵글이 떨어졌다가,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성경의 시선이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부활이라는 모티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 예배는 날이 밝기까지 이어집니다. 날이 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설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니 떡을 떼고 설교를 듣는 예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날이 새도록 멈추고 싶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예배를 사랑하게 되어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엘리사를 남겼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남겼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도들은 없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예배 중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12월 1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267장
성경봉독	롬6:15-23, 요3:16-18
설 교	하나님의 진노와 구속의 은덕
기 도	부 모 대독
주기도문	부 모 다 같이

주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보응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1. 죄악으로 인하여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죄를 가진 자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크기의 죄도 보응하십니다. 이 죄의 보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소고리84문답)

1) 죄인들에게는 **이생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죽음의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생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 문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심판 직후에 육신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 또한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 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차단되었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 의 표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수고로이 일해야 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만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고통이 더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질병의 고통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부터 단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죽음은 타락한 인간이 이생에서 맞이하는 최고의 진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있기에 사망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2) 타락한 인간은 **내생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도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인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이생에서 최고의 진노인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즉, 인간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히9:27).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서 죄의 대하여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은 이생과 내생에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